



스물아홉 번째 방주이야기 (2020년 10월-12월)

(인사)



다사다난 했던 2020년도 여러분의 큰 사랑과 기도로 저희들이 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복되고 평안한 성탄절 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И в этом насыщенном событиями 2020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вашим молитвам и любви мы все ещё есть на этой земле. Желаем вам счастливого и мирного Рождества, а в Новом году ещё большего здоровья и обилия.

감사와 사랑으로 뭉클
우크라이나에서
박철규, 김경희
(시온(송호)지성, 찬하, 견하)
가족 드립니다.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и любовью семья
Моисей, Естер (Сион,
Пол, Джон, Джек) в
Украине.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은 특별하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소망의 기다림과 인내만큼이나 그 은혜도 더욱 컸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이 또한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올해는 첫눈 소식이 늦어서 춥지 않으려나! 생각했는데, 연일 조금씩 내리는 진눈깨비와 눈은 -10도를 유지하면서 빙판길을 만들었습니다. 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하키를 하는가 하면, 등하교길의 아이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거리마다 자동차들의 사고현장을 쉽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꽃감을 만들어 보려고 처마에 40여개의 감을 깎아 걸어 놓았는데, 제법 먹음직하게 꽃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아침마다 바라보면서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만져보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코로나 19를 이겨내는 서민들, 일자리를 잃을까봐 확진자임을 감추고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한달이상 사용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확진

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을 나서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누가 감염자인지 몰라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저희가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

1. 가족들이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한 달여 동안 격리를 하며 치료를 하였고, 지금은건

강하게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분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세르게이와 나스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영어학원 강사와 뼈교정(대체의학)을 배워서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3. 저희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역나눔)

2020년 4/4분기에는 작은방주교회의 이양과 새로운 예배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10월 말에는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겨울 김장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과 독일등에서 양념과 재정의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희망하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1박2일 동안 김장을 하여 나누는 연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4회째 진행중입니다.

11월 초에는 제가 지방에 다녀오면서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었고, 가족들이 모두 감염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난 반면 저는 몇번의 고비를 넘기는 긴 싸움을 하였습니다. 앞서 감염이 되어 치료를 받았던 선교사님들의 조언과 주변 선교사님들의 극진한 보살핌, 긴급할 때마다 중보기도로 함께 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도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곁을 지켜주는 아내 김경희 선교사의 기도와 사랑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격리를 하다보니 12월 중순이 되었고, 이제는 성탄과 연말, 새해를 맞이할 기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통역자 보그단과 한국어 공부를 하며 만난 마샤(15살.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였고, 작은 성탄추리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한마음 되어 위기관리팀을 만들어 필요한 생필품과 약품들을 공급하고, 매일저녁 Zoom을 통해서 연합하여 중보기도를 하며, 위기관리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감염되었던 몇몇 선교사들에게 집중해 주었던 우크라이나 선교사 연합회의 하나됨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러한 혜택의 중심에 있던 저희 가족들과 저에게는 선교사로서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중보와 사랑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의 남아있는 시간에는 이전과 변함없이 섬기는 고아원 방문과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함께 연합하는 시골교회들에게 작은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거창하진 않았지만 특별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의 귀한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세르게이.나스타 학생부 모임)



(선교사 김장(1.4톤))

(2021년 1/4분기 1월-3월 계획)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12월 18일 - 내년 1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는 정부의 행정지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2021년 시작과 더불어 일주일동안 성경통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모임이 자유로워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방주 이야기)

승호+시은, 지성은 각자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교회모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찬양팀, 방송팀으로 섬기며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찬하.건하)

감염자들이 속출하면서 **찬하.건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 주고 있고, 둘다 찬양팀으로 섬기고, 농구시즌이 시작되면서 주전멤버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긴 시간동안 아내의 햇빛 알레르기, 교회이양,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대처로 마음이 분주했지만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그 어느때보다 많아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많은 대화를 하는 복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다시 시작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작은 방주교회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세르게이.나스타)
4.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함께 해 주셨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된 성탄과 연말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새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후원계좌국민502302-04-018046 박철규
외환990-018691-165 침례해외선교회
카톡ID CKGHPARK
전화번호39)093-160-2043 / 070-7518-7443
주소03170) st.Yesenina 22, Kyiv. Ukraine
(Cheol Kyu Park)
<https://m.blog.naver.com/ckghpark>

